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축복

만남과 변화



성금자 권사 (은평대교구)

지난 30여 년간 나의 신앙과 삶을 뒤돌아 보면 빈틈없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보인다. 때로는 고통과 시련도 있었지만 시련을 신앙으로 이기면 하나님은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신다.

남편 없이 딸과 아들을 키우며 어렵게 살던 나는 친구의 도움으로 레스토랑을 개업할 수 있었다. 항상 손님을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으로 여기며 최선을 다해 섬겼다. 의지할 곳 한군데 없는 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려고 노력했다. 그러던 중 1990년대 중반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었다. 부동산업을 하던 그 사람은 돈을 빌려주면 잘 갚아서 믿음만 했다. 차차 신용이 늘어나 어음도 받고 점점 더 많은 돈을 빌려주게 됐고 어느새 통장까지 맡게 됐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년 중 가장 바쁘다는 12월 24일을 맞았다. 그때 그 사람이 부도를 냈다는 소식이 나에게 전해졌다. 은행에 가서 확인해보니 2억원 가량이 있어야 할 통장에 50만원 뿐이었다. 가게 문을 닫고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성경을 읽으며 내가 그동안 심일조를 도둑질 한 것을 깨달았다. 100만원 드려야 할 때 '하나님 30만원만 드릴게요' 하며 일부만 드린게 생각났다. 또 성경 말씀에 송사하지 말라는 말이 생각나 나에게 피해를 입힌 그 사람을 찾지 않았다.

하지만 내 몸은 갑작스런 충격으로 머리부터 온몸에 두드러기가 생겨났다. 뼈 빠지게 고생해서 얻은 결과가 이것인가. 병원을 다녀도 소용없고 한 겨울 눈발에, 잔디에 구르기도 했지만 낮

지 팔리지 않아 결국 내가 인수했다. 사람들은 불경기 속에 무모하다고 말했다. 나 역시 나이도 많고 장사가 안되던 집인데 잘해낼 수 있을까 걱정이 되었다. 그러나 첫날 수입과 함께 모든 걱정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다시 하나님께 하듯 손님을 맞은 결과 1년 3개월 동안 10억을 벌어들였다. 이후 내가 연립주택을 지으면 모든 집이 다 분양되어 주변 사람들을 놀래켰다. 아무 것도 없는 집에서 막내로 태어났는데도 형제들이 내 도움을 받아 살고 있으니 신기할 따름이다. 나는 이제 행통의 비결을 자신있게 말할 수 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누구나 복을 받아, 나누어 주고 꾸어주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을 더 크게 나누기 위해 노인복지회관을 지어서 힘겹고 외로운 노년을 보내는 노인들을 위해서 살고 싶다.

정리=복음회 기자

칼럼

생각의 변화

신문철 교수(한세대학교)



몇년 전 가족들과 함께 '슈렉'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다. 애니메이션 역사상 가장 큰 흥행을 기록한 영화 '슈렉'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은 영화였다. 영화의 주인공 슈렉은 전통적 디즈니 애니메이션이 보여준 착하고 잘 생긴 왕자의 모습과는 달리 덩치가 어마어마하고 온 몸이 녹색인 흉측한 외모를 가지고 음침한 숲 속에서 혼자 비관적인 삶을 살고 있는 인물이다. 이제까지 끊임없이 보여준 착하고 멋지고 지적인 왕자의 모습과는 달리 슈렉은 동종하고 못생겼으며 엄격한 행동을 거침없이 보여준다. 언뜻 생각하기에 어떻게 저런 인물을 주인공으로 등장시켰을까하는 의구심이 생길 정도였다. 최근에 유행하던 드라마 '내 이름은 김삼순'도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드라마였다. 마지막회 시청률 50.5%의 경이적인 기록을 남긴 이 드라마는 주인공의 이름에서부터 무엇인가 참유인생을 나타내고 있다. 김삼순은 대학도 안나왔고, 애인한테 버림을 받아 핏값에 7kg나 살이 쪼들려서 몸이 통통하고 다소 무척 보여지는 그런 여성이다. 하지만 드라마를 시청한 모든 사람들이 주인공 김삼순에게 무엇인가 매력을 느끼고 그녀를 좋아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이 '슈렉'과 '내 이름은 김삼순'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들을 뒤집어서 새로운 각도에서 다시 생각하도록 해학적으로 만들어 놓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합리적이고 사회적 규범과 질서가 있는 사회 속에서 동종하고 엄격한 슈렉, 동종하고 가방 끈이 짧은 김삼순은 패배한 인생이다. 잘 생기고 미모가 뛰어나고 학벌 좋은 사람들이 성공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이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기에 이들은 '할 수 없다', '안된다'는 생각 속에서 인생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다. 하지만 우리가 이들 주인공의 삶을 통해서 배운 교훈은 아마도 '생각의 변화'일 것이다. 나는 동종해서 안돼, 나는 못 배워서 안되라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동종함에도 불구하고, 못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못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내면이 가지고 있는 가치의 발견 속에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긍정적인 생각의 변화가 바로 이들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무엇이 이들의 생각을 변화시켰을까? 그것은 분명한 꿈과 목표이다. 영화에서 슈렉이 음침한 늪지대에서 부정적이며 절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나오자마자 살과 있을 때 슈렉의 생각을 변화시킨 것은 성에 갇혀 있는 피오나 공주를 구하려는 분명한 꿈과 목표를 가지면서부터이다. 주인공은 분명한 꿈과 목표를 가지면서부터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의 변화를 맞이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애인한테 버림받고 직장에서 쫓겨난 이후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에 빠져 있을 때 김삼순의 생각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변화시킨 것은 프랑스의 '르 코르동 블루'에 유학 가서 훌륭한 제빵사가 되려는 그녀의 분명한 꿈과 목표이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는 잠언의 말씀처럼 우리의 생각을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생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분명한 꿈과 목표를 갖는 것이다. 우리가 분명한 꿈과 목표를 가질 때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의 변화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나의 억울함 모두 아시는 주님 연단 후에 더 큰 은혜로 채우셔



으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내 사라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이삭을 얻게 해주셨다는 치유의 약속을 받았다.

이 치유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시고 치료하시고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현실 속에 체험하

이 치유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불임부부를 치유하신 사건으로만 생각해서는 부족하다. 이 사건은 치유의 능력과 기적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거나 실제로 체험한 사람들을 통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치유를 구하고 사역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사역에 대한 훈련과 교육과정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은 치유에 대한 믿음과 체험을 가진 사

순복음 치유신학



4. 구약성경에 나타난 치유사역의 교육(1) - 치유사역자 아브라함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치유사역은 선지자나 제사장 등에게 먼저 하나님 자신이 치유하시는 분임을 소개하거나 때로는 하나님의 치유 능력을 교육하고 훈련시키신 후에 치유 사역자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구약성경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치유 사역자는 아브라함이다. 창세기 20장 17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으니"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의 놀라운 호의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나타난 것을 보여주고, 그를 치유 사역자로 사용하시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원래부터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병이 나을 줄을 믿었는지 아니면 그냥 기도했는데 병이 나았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러나 본문의 내용을 근거하여 볼 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가정을 위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치유경험 넘어 동참을 가르쳐 주신 사례

기 전에 믿음으로 먼저 체험하였다. 이것은 아브라함 혼자 스스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치유와 기적의 약속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신앙 속에 하나님을 향한 치유의 기대를 갖게 하는 교육과 훈련이 되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도 자녀를 낳지 못하는 입장에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다른 가정을 위하여 자연스럽게 의심 없이 기도하였고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응답하여 주셨다. 그 결과 잉태지 못하던 아비멜렉의 아내가 치유되어 다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생산케 하셨다'라고 기록하였다.

람들에게 주시는 공통된 메시지가 담겨져 있음을 보여준다. 그것은 치유에 대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자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그 믿음을 사용할 것이요 치유를 체험했다면 하나님의 치유와 능력을 간증하고 은혜를 나누는 자원을 넘어서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확실한 믿음과 확신을 바탕으로 치유사역에 동참하라는 강력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질병에 절망만 할 것이 아니라 나를 또 하나의 치유 사역자로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지 않은지 용기를 내서 간구해 보아야 되지 않겠는가!

김유민 목사(김포성전 담임)

바로쓰는 교회용어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도자(指導者)입니다"는 잘못된 말

패 이름이 알려진 분이 말씀을 전하기 전에 옆 사람에게 "당신(○○님)은 하나님의 지도자(指導者)입니다"라고 인사하라고 하더니 말씀 중에 "하나님의 지도자(指導者)"란 말을 몇 번이나 사용했는데 이것은 잘못보다도 큰 말발입니다. "홍길동의 지도자"라 하면 홍길동을 가르치고 이끌어 주는 사람이란 뜻인 것과 같이 하나님의 지도자(指導者)라 하면 하나님을 가르치고 이끌어 준다는 말이니 이것은 하나님 앞에 죄짓는 말입니다. 지도자(指導者)란 말을 쓰려면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능력주시는 지도자(指導者)"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교회의 지도자(指導者)"입니다. "택함 받은 지도자(指導者)" 이렇게 해야 옳습니다.

지도자(指導者) = 목적이나 방향을 가르치고 이끌어 주는 사람

원로장로실 제공

제1회 전국 경찰복음화 금식대성회

대상 : 일반성도, 경찰, 전 의경 가족, 경우회원 및 가족



조용기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



이준명 경찰청장



이인열 서울경찰청장



주제: 경찰이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사 60:1)

◆ 일시 : 2005년 8월 15일(월)~19일(금) 새벽 6시, 오전 11시, 오후 3시, 저녁 7시, 밤 10시
(개회예배 <월> 오후 2시, 폐회예배 <금> 오후 3시)

◆ 장소 : 오산리교회실 금식기도원 대성전 외 ☎031)947-0091~3

◆ 주최 : 서울경찰청 교정협의회 ☎02)720-3860, 여의도순복음교회 경찰선교회 ☎02)780-1120

◆ 협찬 : 경찰청, 각지방경찰청, 서울경찰청목회, 경찰선교후원회, 기독교경찰연맹회, 한우리선교회, 경목실 간사연합회

◇ 강사

 유재환 목사 순복음장곡교회 담임	 장명원 목사 한동교회 담임	 이명준 목사 순복음망포교회 담임	 박수원 목사 기도원 담임	 박명진 목사 서울중앙교회 담임
 김기대 목사 강남순복음교회 담임	 sun인한 장로 남대문순복음교회 담임	 양세웅 목사 기도원 담임	 이태원 목사 성복교회 담임	 박대운 목사 영복교회 담임
 이우배 목사 강포교회 담임	 윤승국 회장 경찰선교후원회 담임	 김영수 목사 기도원 담임	 박문순 목사 주인관교회 담임	 이인명 목사 홍우교회 담임
 남명준 목사 순복음안정교회 담임	 이원외 신수 우도 국제교회	 장명선 목사 순복음중앙교회 담임	 장명선 목사 지구순복음교회 담임	 이조순 목사 여의도순복음교회 담임